

28년만의 변화 광주문예회관 3년만에 끝나나

광주시 '첫 개방형 관장' 사의 표명에 '공무원 관장' 다시 도입...지역문화발전 역행 우려

광주시가 광주문예회관 개관 28년만에 최초로 도입한 문예회관장 개방형 직위를 해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광주문예회관의 책임있는 경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19년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민간인 전문가를 영입, 회관 운영을 맡겨 왔었다. 하지만 시는 최근 성현출(57) 광주문예회관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개방형 직위를 2년 6개월만에 해제하고 공직자를 다시 문예회관장에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의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평가 등도 없이 슬한 토론과 논의과정을 거쳐 진행된 '28년만의 시도'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성 관장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9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시에 사직

의사를 전했다. 그는 "예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다"며 "상태가 최근 더욱 악화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됐다"고 말했다.

문화계와 의회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공무원 대신 개방형 공모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관장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잦은 인사 교체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였다. 개관 후 관장은 모두 시 공무원이 맡아 왔다. 지금까지 23명의 관장이 거쳐 갔고 평균 임기는 1년 2개월에 불과해 전문성과 경영 능력 부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첫 민간인 회관장인 성 관장은 민선 7기 당시인 지난 2019년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후 임명됐고 이후 2021년 2월 연임됐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 문예회관장은 문화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지만 이번에 개방형 직위가 해제



되면서 '책임 있는 전문가'들이 운영을 맡는 문화계 추세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대전 등 대부분의 광역시는 민간 전문가를 임용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관장을 맡고 있는 곳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인천문화예술회관 등 두 곳이다. 또 경남 거제 등 최근 문화예술 분야에서 등 두각을 나타내는 도시의 문예회관 역시 전문가들이 수장으로

발탁돼 운영되고 있다.

문화계에서는 무엇보다 28년만에 새롭게 도입한 제도를 하루 아침에 '없던 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개방형 제도에 대한 장·단점 등 평가하고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대안 모색 등도 없이 갑자기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자리' 하나를 늘리려는 발상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시는 현재 개방형 직위 해제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후임 관장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시 공무원 중에도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 이들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인사 공백이 없도록 9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내가 그리는 영화 간판 광주극장, 수강생 모집

광주극장이 영화간판학교 6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간판 학교:손간판 그리기 워크숍'은 마지막 간판쟁이 화가 박태규 작가의 지도로 진행되며 10명이며 선착순으로 10명을 모집한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개별 연락하며 9월 7일 오후 7시 광주극장 미술실에서 오리엔테이션도 개최한다. 완성된 간판은 오는 10월 '개관 86주년 광주극장 영화제' 개막식날 상판식을 가진 후 1년간 극장 대표 간판으로 걸리게 된다. 광주극장 홈페이지에서 신청.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산수와 풍경 사이...이상적 낙원이란?



이현열 작 '라벤더 언덕'

아산조방원미술관, 쫄지·이현열·하루.K 초청 11월 14일까지

자연은 회화 장르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소재가 됐다. 각각의 철학적 사유에서 출발한 동양의 산수화와 서양의 풍경화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모해왔다. 현대화된 산수화와 풍경화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곡성에 위치한 전남도립미술관 분관 아산조방원미술관이 기획한 '산수와 풍경 사이'전을 오는 11월 14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장르를 넘나들며 각기 다른 개성으로 산수화와 풍경화를 재해석한 쫄지, 이현열, 하루.K 3명의 작가를 초청해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

낙원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음식과 산수화가 어우러진 작품으로 잘 알려진 하루.K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산수를 담다-H씨의 도시락' 시리즈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계란부침, 새우튀김 사이에 흘러내리는 폭포, 다양한 모습의 기암괴석, 아름다운 꽃들이 함께 놓인 도시락 작품은 유쾌하다. 작가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음식과 동양 정신으로 상징되는 산수를 한 화면에 배치해 현재의 이상향은 정신과 물질의 조화에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이현열 작가의 작품은 평범한 일상과 여행이 공

존한다. 한국화 전공자로 수묵채색 작업을 진행중인 그의 작품에서는 산수화의 부감기법을 활용한, 탁 트인 시야가 무엇보다 눈에 띈다. 여기에 수만번 이어졌을 노동집약적인 붓질과 조화로운 색채가 특징이다.

전북에서 활동하는 쫄지 작가는 자외선을 이용한 보랏빛 전시공간을 통해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풍경'을 제공한다. 가시광선에 의해 지배되는 통상적인 조형세계에서 벗어나 자외선과 형광 안료를 미술 범주 안으로 끌어들여 구현한 작품은 형식면에서는 낯설지만 나무, 숲, 꽃 등 작품 속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로 또 다른 감성을 전한다.

매주 월요일 휴관. /김미은 기자 mekim@

'미안마 불씨'를 살려 주세요

도립국악단, 내달 1일 빛고을시민문화관·4일 여수 예술마루서



군부 쿠데타 세력에 맞서 민주화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미안마 국민들에 희망을 전하기 위한 무대가 마련된다.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류형선)이 기획공연 '미안마의 봄, 광주를 만나다' (사진)를 내달 1일 오후 7시30분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과 4일 오후 5시 여수 GS칼텍스 예술마루 대극장서 공연한다.

지난 5월 첫 공연된 '미안마의 봄, 광주를 만나다'는 피 땀 눈물로 일궈낸 4월 광주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화 투쟁 한복판에 서있는 미안마 국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음을 전하고, 미안마에 대한 꺼져가는 관심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마련된 무대이다.

KBS '사랑의 리퀘스트', '인간극장' 내레이션으로 잘 알려진 성우는 영선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미안마 군부에 대한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의미하기 위해 '세 손가락' (총 3부)으로 이름 붙여 구성했으며, 첫 번째 손가락은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민주주의', 두 번째 손가락 '슬리의 합성, 사람 사는 세상', 세 번째 손가락 '함께 만드는 평화의 봄'의 순으로 공연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지난 해 초연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작 오라토리오 집체극 '봄날' 테마곡들을 새롭게 재구성한 작품을 선보이며, 재한 미안마 학생회 '미안마의 봄'과 5·18 희생자 유가족 이명자, 추혜성 어머니를 특별 초청해 '미안마 청년들이 오월 어머니께 묻다'란 주제로 위로와 감동의 이야기들을 풀어낼 예정이다.

예매는 전화 또는 티켓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일반 1만원, 학생 5000원. 문의 061-981-692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광주·전남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서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상가제품부문 [연속] 수상

2016 미국 리스베이트어워드 CES 혁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인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 수상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서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상가제품부문 [연속] 수상

2016 미국 리스베이트어워드 CES 혁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인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 수상